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0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6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정보접근성과 정보접근약자 / 안동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

## 장애인계 뉴스

1. 안과의사회, 포괄수가제 인하에 반발해 백내장 수술 거부
2. 장애인 편의제공 이행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3. 한시련, 전국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및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4.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
5. 광주광역시, 점자 도로명주소 홍보물 배포
6.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마음으로 보는 여행 다녀와

사람이야기: 올림픽 금빛 메달이 기대되는 '시각장애유도 최광근 선수'

독자마당: 그남자 그여자 / 이형근(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6월 1일~6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8)

~~~~~

포커스

정보접근성과 정보접근약자

안동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 예약, 민원, 오락, 쇼핑, 의료, 은행업무, 주식 등 정보자체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정보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이런 모든 서비스를 PC 앞에서 뿐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pc 등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고 좋은 전자제품을 사러 용산까지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 최저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집안에서 편안히 물건을 받고 있으며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반품도 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실제 용산전자상가를 가보면 몇 년 전에 비해 매장이 썰렁하여 찾는 이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단 전자제품 뿐 아니라 생필품 구입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트나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기 어렵다면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500원짜리 채소까지도 클릭 한번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배송료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부등본 역시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이체할 수 있고 연극이나 운동경기의 좌석을 예매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조회하고 대출예약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 되어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 혜택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진 사람들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정보접근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고령자가 바로 그들이다. 정보접근약자는 구체적으로 말해 정보통신기기 이용 시 화면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마우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고대비 모니터, 특수마우스와 같이 보조기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약자에 포함된다. 정보접근성 보장이라고 하면 이런 정보접근약자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러한 정보이용 차별문제를 인지하고 2002년부터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왔다. 그 결과 웹에 대해서는 ‘한국웹콘텐츠 접근성지침1.0’에 이어 ‘한국웹콘텐츠접근성지침 2.0’이,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국가표준 및 정부고시로 발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성 실태조사, 보도자료 배포, 인증마크 제도 실시,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정보 이용의 격차를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전자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성은 이전보다 향상되었고 관계자들의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약자가 직접 체감하는 정보접근성은 아

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교통예약, 방송, 신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3년까지는 모든 법인이, 2015년까지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정보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정보접근약자 당사자들의 몫이 더 크다.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 등 몇몇 기관이나 행정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보접근약자 개개인의 의견제시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보접근성을 기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현재의 관행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보접근약자 스스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 장애인계 뉴스

### 1. 안과의사회, 포괄수가제 인하에 반발해 백내장 수술 거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이하 안과의사회)가 7월부터 시행되는 안과포괄수가제 10% 인하에 반대하며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9일 대한안과의사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백내장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추이를 보아가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를 하면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재료나 비싸지만 분명히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기계나 기구를 의사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라며 포괄수가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시력의 질을 더 좋게 하는 비구면 인공수정체 등 고급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눈에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쳐질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가리킨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라며 "만약 환자와 협의 없이 수술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경고했다.

백내장은 녹내장, 망막질환과 함께 시각장애의 최대 원인 질환으로,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60세 이상 73,476명에게 시행해 온 안과검진 결과에 따르면 94%(69,287명)이 안질환이며, 이중 백내장이 44.4%(42,318명), 결막·공막·망막질환이 20.8%, 녹내장이 1.1%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2. 장애인 편의제공 이행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은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지금까지는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해 이를 함께 공고했다. 공공건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

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됐다. 문화시설은 1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이 새로 추가되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선 면적기준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2-2023-8649)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3. 한시련, 전국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및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6월 21일부터 양일간 충남 아산에 위치한 KT도고수련관에서 '전국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및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앙과 지부, 지부와 지부간 실무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부와 지회 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보건복지부 최기호 서기관의 '2012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강의로 일정이 시작됐으며, 최 서기관은 강의 내용을 퀴즈형식으로 준비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박준석 사무국장의 '시각장애인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규일 박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해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으며, 저녁 시간에는 중도재활지원센터와 편의시설업무 실무자들이 각각 분과를 나누어 회의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재무회계 및 사무관리,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의 '중도시각장애인 재활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폐회식을 갖는 것으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연수 및 워크숍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장애체험, 시각장애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4.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가 회의록을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회의록」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그간 회의록은 책자회의록과 배부회의록(DVD)으로 제작해 책자회의록은 영구보존하고 배부회의록(DVD)은 국회, 도서관 등에 배부되어 왔으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회의록은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회의록은 제291회 회의록으로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자와 확대문자를 혼합해서 제작되었다.

총 18권의 점자회의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에 배부되며,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도의회 정책자료센터에도 비치된다.

제주도 내에는 약 4,2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자회의록」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선진 의회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점차적으로 제작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5. 광주광역시, 점자 도로명주소 홍보물 배포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광주시)는 시각장애인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 점자용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번에 제작한 점자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광주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지부의 협조로 제작되었으며, 총 1,000부의 홍보물을 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홍보물에는 시각장애인이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도로명주소 쓰는 법 등을 수록해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점자 홍보물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처를 기재해 시각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문의할 경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최만옥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는 시민 누구나 알아야 하는 정보로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홍보물을 발간하게 되었다”면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마음으로 보는 여행 다녀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한정석)은 네오위즈의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여유를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보는 여행’을 6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남이섬으로 다녀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의 기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오색오감’ 중 하나로, 중증시각장애인부부를 초청해 네오위즈 임직원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여행에는 각 회차 별로 10가정씩 총 20가정이 참여해 네오위즈 직원들과 함께 전기자동차투어, 남이섬 건강걷기, 가족자전거타기 등을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은 이번 행사의 식사 및 입장료 등 체험경비 전액을 후원하였으며, 여행사진을 액자로 제작·전달해 시각장애인 부부의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람이야기

올림픽 금빛 메달이 기대되는 '시각장애유도 최광근 선수'

런던 장애인올림픽이 어느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골볼, 탠덤 사이클, 유도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 중 시각장애 유도 종목의 최광근 선수를 만나기 위해 이천에 위치한 장애인체육종합 훈련원을 찾았다. 최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터키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훈련원에 도착했을 때 최 선수는 유도종목 선수들과 함께 야외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6월 기운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나고 살이 벌겍게 익을 법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광근 선수를 비롯한 유도종목 선수 모두 땀에 옷이 흠뻑 젖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고 있었다.

실내 연습실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최 선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은 멈추지를 않았다. 오전 6시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힘든 훈련 속에서 지칠 만도 한데 인터뷰 내내 그는 밝고 힘이 넘쳤다. 덕분에 훈련원까지 가는 동안 더위에 지친 내가 오히려 그에게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최 광근 선수의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부터 오전 훈련을 시작한다. 오후 5시까지는 근력운동, 선수끼리의 대련 등 정해진 훈련을 받고 저녁시간에는 각자 개인 훈련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재활치료를 받는다.”

-모두들 최광근 선수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고 있다.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는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어차피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으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지만 주위에서 금메달을 딸 거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을 얻고 자극을 받는 편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회를 앞두고 체중조절도 하고 있는가.

“몸에 부담이 안 가도록 대회 2주전부터 체중을 맞춰놓고 음식을 줄인다. 재작년에 갑자기 체중이 확 불어난 적이 있는데, 2주 동안 15킬로를 빼고 시합을 했다. 우승을 하긴 했지만 시상식에 참석도 못하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때 이후로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 보단 평상시에 조절을 하고 있다. 5킬로 이상은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알미운 질문일지 모르겠다. 체중 조절할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나면 사실 특별히 먹고 싶은 건 없다. 다만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맥주 같은 음료 생각이 많이 난다.”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한 최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다 상대선수와 부딪쳐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었다. 유도로 인해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또다시 유도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그에게 유도란 어떤 의미일까.

“사실 망막박리의 특성상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해온 게 유도였고 집안환경도 어려워 장학금 없이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도와준 것이 유도였다. 고3때 운 좋게 시각장애 유도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또 지금은 직업을 갖게 해주었다.

유도는 나에게 모든 걸 주었다. 좌절을 주기도 했고 행복을 주기도 했다.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앞서 말했듯 실업팀에 소속되면서 이제 유도가 직업이 됐다. 장애인 선수로는 드물게 비장애인들과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업팀에 가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비장애인들과 생활하고 운동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팀에 소속된 분들 모두 잘해주신다.”

-장애인이기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나.

“그런 건 없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준다. 그게 더 편하다. 장애가 있다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다.”

-우승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셨고 외동아들이다 보니 가족은 우리 둘 뿐이다. 경기를 할 때나 평상시 연습을 할 때도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

-올림픽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은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 그곳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저 편안히 쉬다 오고 싶다.”

-평상시 연습이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음악을 듣거나 자거나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낸다.”

-수영종목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 시합 직전까지도 음악을 듣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 선수도 혹시 경기가 잘 풀리기 위해 하는 특정한 행동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아, 생각해보니 그날의 도복색깔에 영향을 받는다. 파란색 도복을 입었을 때 경기가 잘된다.(웃음)”

-도복 색깔은 어떻게 정해지나.

“대진표가 정해지면 그때 도복색깔도 정해진다. 런던올림픽에서는 아마 모든 시합에서 파란

색을 입을 것 같다.”

-가장 가까운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일 것 같다. 나아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시각장애 유도 선수는 각 체급마다 10명 미만으로, 총 7체급이니까 전체 선수가 50~60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매우 얇다. 선수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유도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마디.

“몸이 불편하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찾아보면 주위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다. 제가 유도를 통해 즐겁다, 살아있다는 마음이 갖게 된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가져올테니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

## 독자마당

### 그남자 그여자

#### 이형근(전라남도 여수시)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장래를 약속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질병으로 그 남자는 쓰러졌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어머니는 남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그 남자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매일 병실에서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병실생활이 계속되고 친구들의 방문도 뜸해질 때쯤 여자는 부엌에서나 신을 벗한 슬리퍼를 신고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집은 여수였고 병원은 광주에 있었는데 말이지요. 여자의 어머니가 그녀를 가두다시피 하며 감시를 했기에 여자는 부엌창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차비도 없이 무작정 광주로 왔던 것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옷도 집 안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남자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온 것도 모르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하고 직감하며 여자에게 신발을 사주고 여자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따님은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앞으로는 아들과 못 만나게 할 테니 딸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걱정하며 빼만 남은 양상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도 남자를 잊지 못하자 여자의 어머니는 여자를 서둘러 결혼시키기 위해 맞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살고 있는 곳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집안도 가난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다보니 중매쟁이의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자가 어려운 형편에서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며 힘들게 살아온 것을, 남자는 13년이 지난 어젯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울면서 13년 전 그날 병원에서 그녀를 잡지 못하고 잘 살라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던 자신이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여자는 완강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남자를 잡지 못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 후에도 계속 남자를 잊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남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고통에 취해 의식적으로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살고 있다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죽기 전에 그 여자를 우연이라도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그 여자는 지금도 나를 잊지 못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사 구원 하소서.

<격주간 점자소식지 '브레일 타임즈' 독자마당 원고 공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격주간 점자소식지 ‘브레일 타임즈’의 ‘독자마당’ 코너에 실을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일상에서 겪으신 생활 속 작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 02-6925-1121(담당자 노상미)

#### [원고공모관련 안내사항]

1. 주제 및 형식: 생활 속에서 겪은 다양한 주제와 자유로운 형식의 글
  2. 응모 자격: 시각장애인 혹은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누구나 가능.
  3. 접수 기간: 연중
  4. 원고 분량: 한글문서 A4지 10포인트 1페이지 반 내외 / 원고지 5매~15매 / 점자지 8쪽 / 13KB 가량
  5. 접수 방법
    - 1) 인터넷 접수: 넓은마을(아이디: kbupla) 혹은 이메일(kbuhongbo@hanmail.net)로 작성된 원고를 첨부하여 발송
    - 2) 우편 접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로 우편 발송
-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6. 기타 사항
    - 원고를 보내실 때는 연락처와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송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원고가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6월 1일~6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6월 1일(금요일)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에 이어 제22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6월의 일정을 시작했다.

3일(일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으며, 다음날인 4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워크샵에 자리를 함께 했다.

5일(화요일)에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직원 조회 주재한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업무를 보고받았다.

7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한 후, 복지TV와 인터뷰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8일(금요일)에는 전국시각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연수에 참석해 강의를 맡았으며, 이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9일(토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팀연맹) 불링분과위원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11일(월요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대응을 위한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다음날인 12일(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3일(수요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영일 소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으며, 같은 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원장 및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과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14일(목요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행정기관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이어 'MB-새누리당 정권 국기문란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와 민주통합당 긴급의원총회, 6·15남북정상회담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8)**

**1) ‘마는/ 만은’ 어느 것이 맞을까?**

-답: 경우에 따라 구분

-해설: ‘마는’과 ‘만은’은 혼동하는 일이 많다. 특히 ‘마는’을 써야하는 자리에 ‘만은’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마는’의 줄임말이 ‘만’이다보니 ‘만은’과 혼동하기 쉽다. ‘만은’은 명사 다음에 오고 ‘마는’은 어미 다음에 온다.

-예시

- (1) ㄱ. 오늘은 내가 참지마는(참지만) 내일은 어렵었다.  
    ㄴ. 가고 싶다마는(싫다만) 시간이 없군.  
    ㄷ. 얼마 되겠느냐마는(되겠느냐만) 보태 쓰도록 해라.
- (2) ㄱ. 너만은 나를 믿을 줄 알았는데.  
    ㄴ. 그것만은 잊지 마라.  
    ㄷ.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고향만은 못하다.

**2) ‘넌지시’와 ‘넌즈시’ 중 맞는 말은?**

-답: 넌지시

-해설: “넌지시 속마음을 떠볼까?”라고 할 때는 ‘넌지시’가 옳다. ‘넌즈시’로 쓰는 일이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